

4강 싸움, 이제 매 경기가 '전쟁'

KIA, LG·한화화 주중 6연전
4위 롯데 3경기...5위 두산 반경기 차
이번주 중대 분수령...필, 24일 등록



18경기 안에서 '호랑이 군단'의 4강 계산이 끝난다. 울스타브레이크를 보낸 프로야구가 22일 4강 싸움에 다시 돌입한다. '다크호스' KIA는 22일 LG를 챔피언스필드로 불러들여 주중 홈 3연전을 치른다. 주말에는 대전으로 건너 가 최하위 한화를 상대한다.

프로야구의 후반기 관전 포인트는 '4위' 싸움이다. 삼성·넥센·NC가 굳게 선두권을 지키고 가운데, 3위 NC와 4위 롯데와의 경기 차는 6경기로 벌어져 있다. 후반기는 4강 보다는 4위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6위 KIA는 전반기를 38승43패(승률 0.469)로 마감했다. 4위 롯데와는 3경기, 5위 두산과는 반 경기차이다.

두산과는 매 경기 자리가 바뀌는 피 말리는 순위 싸움을 벌이게 됐다. KIA에게 47경기가 남아있는 만큼 롯데도 추격권 안에 들어있다.

후반기 시작 이후 4위 롯데를 만나게 되는 오는 9월 10일까지 18경기가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다.

후반기 첫 상대는 LG다. 최하위에 머물던 LG가 조용히 추격을 해오면서 2경기 차 밖에서 KIA를 응시하고 있다. LG에게 두 차례 워닝 시리즈를 내주는 등 4승 5패로 상대 전적에서 뒤져있다. 여기에 후반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첫 시리즈인만큼 LG와의 기싸움이 중요하다.

후반기 첫 주를 보낸 뒤 이어지는 NC-삼성-두산-SK-롯데와의 일정은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필수적인 승부가 될 전망이다. KIA 천적인 NC(3승6패), 삼성(2승6패)과의 힘겨운 싸움 뒤에는 4위 한자리를 놓고 싸우는 두산·롯데와의 맞대결이 예정된 만큼 후반기 18경기에서 4위 싸움의 계산이 끝날 수도 있다.

매 경기 전쟁 같은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세밀한 선수 구성이 필요하다.

양현종과 홀튼이 원투펀치로 후반기의 막을 여는 가운데 필의 합류시점은 24일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백전과 상무와의 퓨처스리그 경기 등 두 경기를 소화했지만 아직은 100% 컨디션은 아니라는 판단. 여기에 홀튼이 출격할 경우 필이 벤치를 지켜야 하는 만큼 22일 1군 선수단에는 합류하되 등록은 미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나마 야수진을 놓고는 행복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백업진의 약진으로 외야는 치열한 생존 싸움의 장이 됐다. 박준태·이종환·김다원은 물론 신종길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경쟁이다. 최고의 컨디션을 가진 선수를 최적의 포지션에 배치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날씨는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전력 운영을 위한 치밀한 계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KIA는 19일 정백전을 통해 경기 감각을 조율했다. 20일 휴식을 취하는 대신 월요일인 21일 훈련을 하면서 후반기 분위기도 조성했다. KIA가 후반기 4위 싸움의 다크호스로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등부상으로 재활군에 머물렀던 KIA 필(오른쪽)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1군 훈련에 참가해 캐치볼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시아 놀라게 해줄 것”

박태환 “아시안게임서 자유형 200m 3연패 목표”

“남은 시간 잘 준비하면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는 제 최고 기록 달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의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한 박태환(25·인천시청)이 다시 한번 아시아 무대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박태환은 21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14 MBC배 전국수영대회 남자 일반부 개인혼영 400m경기에서 4분23초21의 대회 신기록을 세우고 1위에 오르며 이번 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아시안게임 경영 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진 이 대회에서 박태환은 여섯 종목에 출전해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정상급 기량을 재확인했다.

주 종목인 자유형 100m·200m·400m를 포함해 개인혼영 200m·400m와 단 체전인 계영 800m에서도 우승했다. 아시안게임 3연패를 노리는 자유형 200m에서는 올 시즌 세계랭킹 1위 기록인 1분45초25에 레이스를 마쳤고, 주 종목도 아닌 개인혼영 200m에서는 2분00초31의 한국 신기록까지 세웠다.

박태환은 “잘 마무리한 것 같다.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 남은 일정 동안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대표 선발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에 비교 특이 않은 수심 등 경기장 환경과 무

더위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기록을 낸 것에 의미를 뒀다. 박태환은 2006년 카타르 도하 대회 때에는 자유형 200·400·1500m에서 금메달을 수확했고, 2010년 중국 광저우 대회에서는 자유형 100·200·400m 금메달을 쓸어담아 2회 연속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올랐다. 자유형 200m와 400m에서는 3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업에 도전한다.

아시안게임 개인혼영 경기 출전에 대해서는 “400m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냈다”는 말과 함께 “출전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개인혼영 200m의 경우는 마이클 볼코치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박태환은 “구간 페이스는 조금 미숙한 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 기회였다. 중간 페이스만 보완하면 최고 기록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고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태환은 오는 30일 다시 호주로 건너 가서 아시안게임 준비를 이어간다.

“늘 기대 이상 보여 드리려고 연습해 왔다”는 그는 “호주로 돌아가면 빨리 좋은 에너지를 갖고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해 아시안게임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축구협 기술위원장 주내 선임

이용수 세종대 교수·김학범 전 성남 일화 감독 2파전

대한축구협회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선임 기술위원장을 뽑기로 했다. 새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이 늦어지면 9월 두 차례 평가전에는 ‘임시 사령탑’을 앉힐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몽구 대한축구협회장은 21일 축구회관에서 회장단 정례회의를 열고 부회장단과 실·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새로운 기술위원장과 감독 선임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 대해 이해도 대화협력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선임 기술위원장을 선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기술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과 축구협회의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기술위원회 구성은 선임위원장이 맡아야 하는 가운데 기술위원도 K리그 최상위군의 감독을 비롯해 대학 지도자, 전직 대표팀 코칭스태프 등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도 이야기됐다”고 덧붙였다.

신임 사령탑 추천이 기술위원회의 권한인 만큼 이번 주 내에 선임 기술위원장을 선임하고 기술위원회를 구성해

축구협회가 보유한 ‘사령탑풀’(국내 10여명·해외 10여명)을 가동, 새로운 대표팀 감독을 선발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선임 기술위원장 후보로는 2002한·일 월드컵 당시 기술위원장을 맡았던 이용수 세종대 교수와 김학범 전 성남 일화(현 성남FC) 감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신임 기술위원장 선정은 서둘러도 선임 사령탑 선정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게 축구협회의 입장이다.

이 실장은 “새 사령탑 선정은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날 회의 참석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며 “너무 장고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선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독 선임 과정이 빨리 진행되면 9월 평가전부터 지휘봉을 잡을 수도 있지만 육성을 고르다 보면 일이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 선임 작업이 느리지 않으면 9월 평가전은 임시 사령탑이 맡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승택 “1군 호랑이 되고 싶어요”

지난해 이용규 보상선수로 KIA 이적
경찰청 포수 활약...1군 목표로 맹훈련



“1군에 가겠다는 간절함으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KIA 타이거즈가 낯선, 포수 한승택(경찰청)의 각오다. 경찰청에서 군복무 중인 한승택은 지난해 덕수고를 졸업한 2년차의 선수다. 이제 겨우 20살인 어린 선수지만 1군에서 24경기를 뒀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KIA 팬들에게는 낯선 이름이기도 하다. KIA 소속이지만 아직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단 한 경기도 뛰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화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한승택은 지난 11월 말 이용규의 FA 보상선수로 KIA의 선택을 받은 ‘미래’다. 그러나 예정되었던 군복무를 위해 지난 겨울 경찰청 유니폼을 입었다. KIA 선수지만 아직 KIA 유니폼을 입지 못한 이유다.

한승택이 낯선 KIA. 한승택에게도 KIA는 아직 낯

설다. 경찰청이 2부리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필드에서 경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 이번 퓨처스 리그 울스타전은 자신의 첫 홈구장 방문이기도 했다.

“야구장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안방을 처음 찾은 소감을 밝힌 한승택은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기도 했지만 이제는 KIA 선수라는 것에 적응된 것 같다. 시즌 끝나고 또 KIA와 퓨처스리그 경기 때 2군 코칭스태프를 뵈고 인사는 드렸다”고 말했다.

한승택은 지난해 입단과 함께 김응용 한화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1군에서 포수 마스크를 썼다. 하지만 경쟁한 프로 베틀은 높았다. 경험 미숙의 어린 포수는 시즌이 끝난 후 ‘포수 조련사’ 유승안 감독이 있는 경찰청으로 입대해 군복무를 하고 있다.

한승택은 “KIA로 돌아가며 1군에 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를 하고 있다. 송구와 블로킹 등 수비는 자신 있다. 일찍 군복무를 시작했는데 잘한 선택인 것 같다. 경기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 경기를 하면서 경험, 체력 부분을 키우고 있다. 타격이 약점인데 이 부분에 집중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팀에 돌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